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현황

정영진, 최광식, 문일성, 이총규¹, 손성길²

국립산림과학원, ¹경남산림환경연구원, ²경북산림환경연구소

우리나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의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이 확인된 이후 10년 가까이 인접 부산 지역과 경남 양산에만 확산이 되었으나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경남 함안, 진주, 통영, 사천과 울산 울주 지역에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2001년에는 경남의 거제, 김해, 진해, 밀양뿐만 아니라 전남 목포와 경북 구미 등 4개 시군에서도 피해가 발생되었다. 2003년에는 전남 신암과 영암, 경북 칠곡 등 3개 군에서 신규 피해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2004년 이후 경남 하동, 고성, 창녕, 경북 포항, 경주, 청도, 제주 제주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여 2005년 현재 부산 13개 구군, 울산 4개 구군, 경남 14개 시군, 경북 5개 시군, 전남 3개 시군, 제주 1개 시 등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한 상태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요인으로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력 이동과 감염목의 불법 이동에 의한 인위적인 확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매개충의 자력 이동은 통상 3km 이내이므로 예측이 가능하나 인위적인 확산은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997년 이후 원거리 확산은 대부분 감염목을 건축자재나 산업자재, 연료 등으로 불법 사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들어 인위적인 확산에 의한 피해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산 기장과 해운대, 경남 사천 등 일부 지역에서 피해 급증 현상을 보여 자칫 안이하게 대처하여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금후 정확한 예찰조사결과를 토대로 철두철미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현 위치에서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